

미국 커피 시장 현황

오늘날 커피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들이 매일 아침을 함께하는 중요한 음료가 되었을뿐 아니라 커피가 우리몸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10 여년전부터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당한 고품질 유기농 신선한 커피는 정신을 가다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커피 소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한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매일 한두잔 적당한량의 커피는 우리 몸에 이로로운것으로 조사 되었다. 커피에 함유된 주성분인 카페인이 다른 카페인과는 성능이 조금 다르게 밝혀지면서 점점 더 커피에대한 관심이 이어져 최근에는 여러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몇년사이에 커피체인점은 점점 더 커피 메니아들의 인기를 끄는 가운데 커피를 사기위해 늘어선 긴줄을 서야할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도 휴식공간으로서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인 스타벅스와 던킨은 미국 커피 전문점의 상징이 되었고 미국 커피시장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83% 미국인들이 하루한잔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8 - 24 세 사이 젊은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24.74 를 커피사는데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의 역사를 살펴보면 15 세기 중엽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의 아비사니아 고원의 칼리라는 목동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칼리의 양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데 발견하고서 양들이 먹은 푸른색 콩종류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커피 열매였다고 한다. 중동의 예멘으로도 수출되었고 아라비카종류로서 처음으로 볶아서 갈아 걸러서 마시기 시작했다. 커피는 수확시 녹색 상태의 콩종류인데 불에 볶으면서 점점 더 갈색으로 변하면서 2 배 사이즈로

커진다. 또한 볶는 방법과 온도에 따라서 맛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살짝 볶은것, 중간 볶은것, 더 세계 볶은것 등이 있고 또한 분말로 가는 상태나 거르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는 특징이 있다. 전기커피메이커는 대중화된지 오래며 메니아들의 사랑을 받는 에스프레소 커피는 뜨거운 물 (91-95 도)에 같은 커피를 압력을 주어서 거르는 방식으로 작은잔에 제공되며 진한게 특징이다. 특히 잘 볶은 신선한 커피를 거를때 나는 커피향은 커피 매니아가 아니어도 매력적이지 않을수 없다.



인스턴트 커피는 1907 년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하면서 뜨거운 물에 바로 타서 먹을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작해 빠른 속도성장하기 시작했다. 1947 년 벤딩 자판기가 발명되므로 인해 1950 년까지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재빠르게 증가하였고 캔커피역시 대중화되어 아시아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과 타이완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네슬레의 캔커피가 유명하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지는 단연 브라질이 으뜸이며 그뒤로 아시아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다음이고 남미국가인 콜롬비아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까지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 5 개국이 세계 커피 생산량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만점은 이들 국가 모두가 적도 근처의 더운 나라들이며 커피생산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관계로 이들 개발도상국들의 노동력 이 커피생산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1 Top twenty green coffee producers

Rank	Country	Tonnes ¹	Bags x1000	Market share
1	 Brazil	2,609,040	43,484	33.1%
2	 Vietnam	1,200,000	20,000	15.2%
3	 Indonesia ^[note 1]	495,000	8,250	6.3%
4	 Colombia	468,000	7,800	5.9%
5	 Ethiopia ^[note 1]	390,000	6,500	5.0%
Top 5 producers		5,162,040	86,034	65.6%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음료 이상으로 우리몸에 이로운 여러 장점이 있다는게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더욱 커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두통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의학적인 목적 즉 진통제로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각성제, 자극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매일 마시는 두잔이상의 커피는 우리에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나 담석, 심장병 또는 당뇨,간경변 을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암 발생율(전립선암, 유방암) 을 20%정도 예방할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마시면 노화 를 억제시키는 효과와 체중감소의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대로 장기적인 과다섭취 중독현상으로 나타나는 만성 불안증이나 불면증은 커피의 카페인 이 우리 몸 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도 영향이 있는걸 말해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루에 열잔이상 마시는 경우이다. 따라서 커피는 즐기고 싶으나 카페인 과다 섭취가 염려되는 소비자는 디카페인(카페인 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고함) 커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12%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를 볶기전 녹색 콩상태에서 카페인이 추출되는데 뽑아낸 카페인은 제약회사에서 쓰여진다고 한다.

커피하면 떠오르는 단어인 스타벅스는 미국커피전문점의 상징이 되었는데 1970 년에 미국 서부 시에틀에서 커피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세계에 지점망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스타벅스 자체 브랜드 커피 생산시스템은 직접산지커피농장과의 계약방식으로 하는 점이 보다 나은 품질의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점이 돋보인다.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일뿐만아니라 휴식공간, 또는 공부공간으로도 시간제한없이 앉아있을수 있으므로 인해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이시대의 흐름에 맞게 세계어느곳에 가든지 스타벅스 매장에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걸로도 유명하며 실내 디자인도 심플하고도 독특한 현지화된 분위기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특히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모카, 마끼토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계절음료로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자체 고유의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고 스타벅스 특유의 현대적인 독특한디자인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스타벅스가 미국 서부의 브랜드라면 1950 년 동부 메사추세스에서 시작된 던킨 도너츠는 스타벅스와 쌍벽을 이루는 동부쪽 브랜드다. 도너츠와 함께 제공되는 던킨의 커피는 일찍 아침을 시작하는 미국인들의 아침식사로 손색이 없을 만큼 인기가 높으며, 매일 아침 던킨 커피점에

늘어선 긴줄을 곳곳에서 흔히 볼수 있다. 던킨의 다크로스트, 디카페, 푸렌치마닐라, 헤즐넛등이 판매 되고 있으며 스타벅스커피가 조금 진한 맛 (Dark Rost) 인 반면 던킨커피 (Light Rost)는 조금 더 순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커피잔 크기면에서 미국인들의 커피사랑을 엿볼수 있는데 작은 사이즈 (8oz 237ml), 중간사이즈 (12oz 355ml) 그리고 큰사이즈(16oz 473ml) 로써 다른 음료수와 동일사이즈이다.

커피는 미국가정에서는 아침메뉴와 함께 제공되기도 하고 식후에 제공되기도 하는데 보통 식당에서나 모임에서는 식후에 후식으로써 제공되기도 한다. 커피타임이라는 말은 1952 년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지금은 미국 직장에서는 많이 대중화되었다.

현재 가공 커피 브랜드시장 점유율은 Folgers 21.6%, Maxwell House 14.6% 그리고 스타벅스가 9.75%를 차지하고 있다.

참조

www.starbucks.com

www.healthambition.com/negative-effects-of-coffee

www.statista.com/topics/1248/coffee-market

en.wikipedia.org/wiki/Coffee

www.starbucks.com/

www.healthambition.com/negative-effects-of-coffee/

www.statista.com/topics/1248/coffee-market/